

광주 '친일 흔적' 단죄비 설치 검토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과 누정현판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가에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친일 흔적'에 대해서는 단죄비 설치와 교육자료 활용 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9일 본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대표 홍기대)이 주관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인사 156명(광주 13, 전남 143)의 행적과 잔재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27일부터 150일간 진행됐다.

용역 결과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8월 해방 직후 사이에 만들어진 비석, 비각, 누정현판, 각급 학교 교가를 비롯해 군사·통치·산업시설 등에 친일 시설물이 광주·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 데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 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고 교장, 유명 사찰 주지, 영화감독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학교 교가를 만든 일부 작사·작곡가들도 친일 인물로 분류됐다. C대, H대, S고, G여고, D고 교가가 대표적이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용열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행군수 후후난유 구폐선정비, 원효사 부도전 송화사 부도비 등이 확인됐다. 또 송정공원 내 나무야미타불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서구 양동 전남도시제사공정(굴뚝), 지하시설 및 방공호 등 여러 건축물도 포함됐다.

남구 사동 양파정 누정현판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윤남 정봉현의 상량문과 하정 여규형의 시문, 의춘후인 남기운의 시문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구 세하동 습향각 현판도 일제 잔재물로 분류됐다.

이밖에 사월산 지하동굴과 마죽동 탄약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동굴 등 군사시설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용역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 ▲네거티브 유산을 견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친일 잔재 연구용역 결과 경찰·사법·교육 분야 친일 인사 156명 발굴 건축물·교가 등 곳곳 산재 "단죄비·교육 필요"

화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 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 활용 방안

신봉우 기자



"제대로 낚였네" 10일 오전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리는 화천군 화천천 얼음별관에서 관광객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숨진 직원 1억7000만원 횡령 정황 포착

지난달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남문화관광재단 소속 계약직 A씨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포착됐다.

10일 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A씨는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과 전라도 정도 1000년 홍보사업 등을 맡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지난달 13일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단이 자체 조사한 결과 A씨가 사업비 1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홍보공연단에게 지급해야 할 예산이 들어있는 법인카드를 문화상품권을 구입,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단은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단의

법인카드 지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전남도는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횡령 사실은 확인이 됐으며 "보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삼급 기관인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지난해 광주지역 화재 발생 6.8% 감소

인명피해 전년 비 19.4% ↓

지난해 광주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9일 지난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0건이 발생해 29명의 인명피해와 36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화재 건수는 6.8%(63건), 인명피해는 19.4%(7

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8.1%(297000여만원) 증가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9.8%(428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25.8%(222건), 기계 8.7%(75건), 원인미상 7.1%(6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 중에는 담배꽂초 방치가 33.2%(142건), 음식물 조리 중 20.3%(87건), 쓰레기 소각 15.4%(66건), 불세 방지 9.1%(39건)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28.4%(244건)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서비스 시설 16.2%(139건), 기타 15%(129건), 자동차 12.9%(111건), 산업시설 7.2%(62건) 순이었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힘쓰겠다"며 "시민들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남규 기자

노르웨이 억만장자의 부인 피랍...몸값 요구

지난해 10월 31일 실종됐던 노르웨이 억만장자의 부인이 납치됐으며, 납치범들이 1000만 달러(약 122억원)를 넘는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노르웨이 경찰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억만장자 부동산 투자자 겸 전기회사 소유주 톰 하겐의 부인 안네-엘리자베스 팔케빅 하겐(68)의 납치 용의범들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톰 하겐은 17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224억원)의 재산을 보유, 노르웨이 172위의 부호로 꼽히고 있다고 노르웨이의 NTB 통신은 전했다.

토르 미켈 외라 노르웨이 법무장관은 NTB 통신에 팔케빅 하겐의 실종 직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책임자 토미 브리우스케는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납치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리우스케는 팔케빅 하겐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녀가 죽었다는 어떤 기미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신문 VG는 오슬로에 있는 하겐 부부의 집에서 "알호페레 모네로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찰이 개입하면 팔케빅 하겐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쪽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브리우스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요구하는 몸값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언론들은 900만 유로(116억325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브리우스케는 경찰이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북부에서 경비행기 추락 1명 사망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서 9일(현지시간)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1명이 죽고 1명은 실종됐다고 구조대가 밝혔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2시께로 안개가 심한 기푸스코아주의 산악지대에 있는 높이 1078m의 에르니오산에서 추락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폭발음을 듣고 바스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의 국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비행기는 영국에 등록된 파이퍼 기종으로 당일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도시 카스카이스에서 이륙해 스페인의 프랑스 국경에 가까운 운다리바에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구조대는 헬리콥터를 띄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불타버린 기체의 잔해만 오후 3시 45분께 발견했다.

사망자 시신에 이어 실종자를 찾는 수색작전은 날이 어두워져 오후 6시에 종결되었다.

사고 현장은 경찰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봉쇄했으며 수색대는 10일에도 두번째 사망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산 채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난민 49명 태운 NGO 선박, 몰타 입항

지중해 구조 난민 49명을 태운 두 척의 비정부기구(NGO) 선박이 결국 몰타 입항 허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조지프 무스카토 몰타 총리 상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두 대의 NGO 선박에 탑승한 49명의 난민들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분산 수용된다.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루마니아, 네덜란드가 분산수용에 합의했다.

다만 반(反)이민주의에 앞장서온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성명 발표 후 SNS에 난민 수용에 대한 이탈리아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탈리아의 실제 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독일 민간구조단체 씨워치(Sea Watch)의 선박인 씨워치 3호는 지난해 12월 22일 리비아 인근에서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 32명을 구조했다. 또 다른 독일 민간구조단체 씨아이는 일주일 후 몰타 해안 인근에서 17명의 또 다른 난민들을 구조했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구조 이후 위생상태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입항허가를 하지 않아 지중해에서 표류해왔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에 지난 6일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 '연대'를 거론하며 난민선박 입항 및 하선 허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몰타는 해안경비대에 구조됐던 또 다른 224명의 사람들도 EU 국가들에 분산수용될 예정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